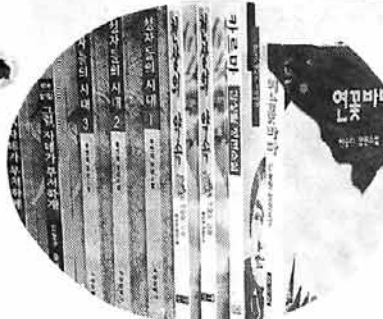


불교소설 줄이어 봄나들이



그동안 부진하던 불교문학계에 (카르마) <그림, 지네가 부처하게> <연꽃바다> 등 5종의 불교소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고뇌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그린 소설 <카르마>(큰산)가, 인간의 이기심을 자연의 눈을 빌어 서술한 <연꽃바다>(세계사)가, 보조국사 지눌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그림, 지네가 부처하게>(전3권 참샘)가, 남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통해 전생과 윤회를 묘사한 <천상의 약속>(전2권 참샘)가, 인간 존재근원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구도소설 <성자들의 시대>(전3권 자유문학사) 등.

<아제아제바라아제> <시인의 집> 등의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승원씨의 <연꽃바다>는 맑고 푸른 하늘, 쪽빛바다, 전망 좋은 매실농장을 배경으로 의인화된 박재부부와 백양나무의 시각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예리하게 관찰한 작품이다. 시인이자

- 카르마 인연 고리 얽매인 수행자 묘사
- 그림, 지네가 보조국사 생애와 사상 소설화
- 연꽃바다 자연의 눈으로 본 인간 이기심
- 천상의 약속 전생·윤회 등 불가사의한 세계
- 성자의 시대 인간존재 근원 찾는 과정 그려

정치기이며 사업가인 박주철이 세 여자를 통해 낳은 네 자녀가 매실농장에 모여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재산싸움을 한다. 반면 박재부부와 백양나무로 대표되는 자연은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만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입산과 환속을 반복하는 지상스님을 통해 풀기 힘든 인연의 고리에 얽매어 고뇌하는 인간의 갈등을 그린 (카르마)는 김상렬씨의 작품. 지상스님이 출가해 스님이 되었다가 환속해 처자식을 두지만, 부질없는 속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입산하는 과정을 사실적인 필체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지상스님이 인연고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치열한 구도행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고려 불교계에 새로운 선종을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의 일생을 그린 신원규씨의 <그림, 지네가 부처하게>는 전기로 쓰듯 주인공의 구도행각을 세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지눌스님의 출가와 도반과의 수행상, 강론을 마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열반에 든 모습 등을 무신장권으로 대변되는 당대 역사를 배경으로 유려하게 그리고 있다.

지상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천상의 저편에서만 존재했던 두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을 그린 작가 백금남씨의 <천상의 약속>은 전생 윤회 영혼이라는 불가사의한 세계에 접근하고 있다. 김기자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가 체험한 환생이야기와 영천사의 엄경대와 관련된 경대스님 선등스님 무설스님 순분이 그리고 '청녀이혼(淸女離魂)'이라는 화두와 관련된 전생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전생의 흔적과 그 속에 얽힌 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 소설적 재미를 더해 준다.

<성자들의 예언> <우리 명산 답사기> 등의 저자 류인화씨의 소설 <성자들의 시대>(전3권 자유문학사)는 온화한 백학봉 정상근처 초막에 사는 곱추 이석주의 수행상을 그리고 있다. 그의 스승 박운선생, 조사 운허도인과 개심사의 지현스님 등 윤행과 번뇌를 남김없이 떨치고 대자유를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수행자의 길을 제시한다.

김지연 기자

불심시심 <83>

푸른 산이 나의 집

靑山碧水是吾居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靑山靑水是吾居)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樓閣玲瓏入紫虛 누각은 영롱하여 하늘 선공에 들다
(樓閣玲瓏入紫虛)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靜裏瀟瀟遼海鶴 정적 속에 여린 모습은 먼 바다의 학이고
(靜裏瀟瀟遼海鶴)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開中眞味越江魚 한가한 중 참 맛은 강을 건너온 물고기지
(開中眞味越江魚)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山當小築色常滿 산 마주한 작은 집 항상 산빛 가득하고
(山當小築色常滿)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水到石溪澗更餘 물 시내 내리는 물 여운이 남는 울림
(水到石溪澗更餘)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外客不來花鳥語 외지 손님 없기에 새와 꽃만의 대화
(外客不來花鳥語)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移床松栢臥看書 숲 밑으로 자리 옮겨 누워서 읽는 책
(移床松栢臥看書) 푸른 산 푸른 물 이것이 나의 집

화산의 모임에 차운한다(次 花山會) 한 시로 송계대의 시이다. 화산지방에서 모인 시회 모임에 차운한 것이다. 직접 그 모임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그 시회에서 있었던 시문에 따라 지은 시이다. 속가의 선비와 시를 짓기는 하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산사에 있는 스님이다. 외지에서 보면 산사에 갇혀 있는 외로운 몸이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다. 어쩌면 이때 읽는 책은 인간문자의 책이 아니라 천연문자의 대자연 그대로일 수도 있다. 사실이 그렇다. 책 속의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이 자연의 진실 아닌가. 소나무 아래로 옮긴 책상 위의 책은 바로 이 자연이 아니라 논리도 맞다. 스님은 지금 이 자연의 진실을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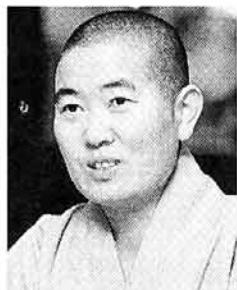
스님은 이렇듯 자연을 내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자신을 자연 속으로 투영시키기도 하여 그야말로 너 나 가 없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시화하고 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교 꽃꽂이 시대별 재현”

만등만화 육법공양 여는 정명스님

“요즘 사찰행사에서 전통 육법공양의식이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 기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증 재현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등만화 육법공양회’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만등만화 육법공양회’를 주관하는 정명스

12일 장충體育...범패게송 한글화 60여쌍 무료로 전통 불교혼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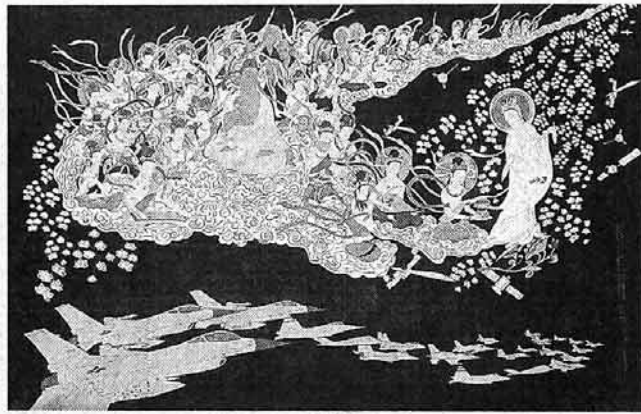
남(연화정사 주지)은 이 행사에 동참하는 5천여 대종이 차례로 꽃과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시간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법공양이란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행해지던 불교전통의식으로 향 등 차 꽃 과일 쌀 등 6가지를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이다.

오후 3시부터 3시간동안 거행될 이번 행사는 전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스님들에 의해 올려지는 예불·신중작법. 2부는 육법공양법회 및 만등만화 공양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전통 불교꽃꽂이가 차례로 불전에 올려진다. 고대 꽃꽂이의 재현은 고구려 벽화나

명화, 변상도, 민화 등을 통해 고증했다. 시연에는 연화꽃꽂이 회 회원들과 불자 등 1백여명이 무대에 선다. 3부에는 가정형편 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60여쌍의 무료결혼식이 전통불교혼례의식으로 거행된다.

“육법공양때 부르는 범패게송을 한글화했습니다. 반영구 작사, 김희경 작곡으로 김성녀씨 등 국악인에 의해 연주될 예정”이라 밝힌 정명스님은 “공양의 의미가 확연히 전해짐으로써 더욱 가슴에 와 닿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많이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경숙 기자



오늘의 후불담화 '주악천년도' 현대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탕화 '주악천년도'. 3월30일 총주 군법당 향토사에 봉안된 3점의 후불담화 중 하나이다. '현대불교' 연재소설 '수미산 삼화'를 그리고 있는 한국화가 조한숙 씨 작품(370cm x 280cm).

향가서 구운몽까지 재조명

고전문학회 '국문학과 불교'

<삼국유사>의 향가에서부터 조선조의 <구운몽>에 이르기까지 고전문학과 결부된 불교를 재조명한 논문집 <국문학과 불교>(장경각)가 발간됐다.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가 펴낸 이 책은 설화, 소설, 선시, 한문학 등의 고전문학에 투영된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소개했다.

서대석 교수(서울대)는 <한국 설화문학의 불교적 이해>에서 그동안 학계에서 <삼국유사>의 설화뿐만 아니라 한경했던 불교사상관련 해석을 <장자못 설화> <호랑이 눈범> <상원사 유래> 등 구비설화에까지 넓혔다. 설화의 유형을 보배설화, 윤회전생설화, 구원설화 등으로 나눠 수행을 돕는 부처와 파계자의 징벌구

도, 분봉의 세계를 극복하고 보살행의 구도세계를 지향하는 형식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구운몽의 불교사상과 소설미학>에서 유병환 교수(공주대)는 <구운몽> 연구방향을 불교사상추출에 근거했던 기존의 시각과 달리 불교사상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어떻게 구상화해 소설로 성공시켰는가로 잡았다. 또 <구운몽>에 내재된 구조적인 요소를 분석해 복선과 대응, 상징의 기법이 연기와 공을 심화시켜 소설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희철 교수(청주대)의 <향가의 불교적 언어문화>는 불교가 향찰의 문자와 운용법을 발달시켰다고 주장한다. 양교수는 불경의 장엄화와 구상화의 일부 표현법은 향가표현

에 그대로 쓰이거나 같은 유형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인 경전 계승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4구 1계는 균여향가에서 4-4-2체의 형식으로 정리해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불교는 향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문학과 불교>에는 이외에도 △사찰전설로 본 백제불교사의 전개-황인덕(충남대 교수) △한국시가와 불교-성호경(영남대 교수) △한국불가산시의 제재와 그 성격-이진오(부산대 교수) 등 총 12편이 실려 있다. (연)

국문학과 불교

문화 소식

월정·용주사 박물관 착공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주지 현해)는 11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박물관 착공식을 갖는다. 오는 12월 완공예정인 월정사성보박물관에는 육수관음상 등 2백여 성보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도 오는 20일 성보박물관 착공식을 거행한다.

진주서 원성스님 동승전

동승의 다양한 모습을 통한 천진불심을 표현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원성스님이 11일부터 17일 까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18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문

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작품전을 갖는다. 이번 작품전에는 다양한 모습의 동승 4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원성스님의 동승작품 25점이 인사동 풍경갤러리에서 상설전시되고 있다. 동승그림 엮어서 카드, 달력도 판매한다. (02)723-3375

박서보·김기린 모노크롬展

70년대 한국화단의 모노크롬(단색주의 그림을 의미)전을 이끌었던 중견화가 박서보, 김기린 두 작가의 모노크롬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박서보씨는 15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김기린씨는 오는 26일까지 가인화당에서 각각 작품전을 가지며 모노크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 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서유 큰스님 (고불충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 2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중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찾아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정량한 삶을 조명
- 3 일미 큰스님 (조계종 중정) 탈린트 고두심 찾아가 동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계정의 말씀
- 4 석주 큰스님 (철보사 조실) 동화사가 정채봉 찾아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 5 일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 6 상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승한우교수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의 전개되는 감동의 영상
- 7 고승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탈린트 영명관 문화예술회관에 설과
- 8 비룡 큰스님 (일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가 대담
- 9 원담 큰스님 (덕승충림 방장) 관화가 황남재 찾아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진지들 친한
- 10 율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입성)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일기꾼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일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